

# 전남대 '기술사업화' 세계로 뻗는다



교육부-한국연구재단 '브릿지사업' 2년 연속 '매우 우수'

수산화마그네슘 제조 기술 개발 성공...50억 국책사업 수주

'폐간수서 자원 확보' 호주 기업과 100만달러 기술이전 계약

전남대가 '기술사업화' 실적으로 주목 받고 있다. 전국 대학들 가운데 2년 연속 가장 우수한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으면서다.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역 국립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는 10일 한국연구재단과 공동으로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사업'(브릿지 사업)에 참여한 20개 사업단의 연차평가 결과, 전남대 컨소시엄은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 전남대 컨소시엄은 전남대를 주관기관으로 전북대,

제주대, 원광대가 참여하고 있다.

브릿지 사업이란 대학이 보유한 아이디어, 특허, 기술 등을 기반으로 기술이전, 기술창업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업단별로 연간 최대 10억원, 총 150억원을 지원한다. 전남대를 비롯, 성균관대, 한양대 컨소시엄, 연세대 등 3개 사업단도 '매우 우수'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학령 인구 감소에 그나마 들어온

학생들도 좋은 일자리가 몰려오는 수도권으로 옮겨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상황에서 일궈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남대는 전년도 '브릿지사업' 연차평가에서도 '매우우수' 등급을 받아 사업비의 4.8%를 인센티브로 받은 바 있다.

전남대 컨소시엄(책임교수 김명준 전남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의 경우 '버려지는 간수에서 HMC(하이드레이트 마그네슘 카보네이트)를 확보하는 기

술'로 호주 기업 에코매그(Ecomag)사와 미화 100만 달러의 해외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대규모 열전사업장에서 소금생산 공정 중 버려지는 간수에 함유된 마그네슘을 회수, HMC, 고순도 마그네시아, 마그네슘 화합물 등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게 전남대 설명이다.

전남대 컨소시엄은 아울러 '수산화 마그네슘 제조기술' 개발에 성공, 중소기업청으로부터 49억8000만원의 국책사업을 수주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전남대 관계자는 "대학의 우수한 연구성과가 지역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더욱 활발하게 사업화로 이어져 국가·지역 산업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박근혜 탄핵 한달' 현재, 이제는 말할 수 있다

# 재판관들, 박근혜 구속 직감 영장 발부 심적 부담에 악몽

이전에 재판관 취임 후 '8인 체제'로 심리 재개

지난달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일부 헌법재판관들 박 전 대통령이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거란 사실을 직감했다.

탄핵심판 석 달 내내 검찰 수사기록을 달달 외우다시피 읽은 결과였다. 재판관들은 영장 발부 소식을 접하고는 "안타깝다"는 말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일부 재판관들은 심적 부담에 악몽을 꾸기도 했다고 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소장 권한대행이 이끄는 현재는 최근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첫 번째 재판관 평의를 열고 다시 본격 심리에 들어갔다.

한 달 전인 3월 10일 오전 헌재 대통령 파면이라는 역사적 결정을 내린 재판관들은 이후 짧은 휴가를 가거나 미뤄온 바깥 활동을 하며 약 20일간 그간 누적된 피로를 풀었다.

특히 같은 달 13일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전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고 이선애(50·사법연수원 21기) 재판관이 지난 달 29일 취임해 다시 '8인 체제'가 구성될 때까지 모든 심리가 중단된 상태였다.

이에 지난주 열린 첫 평의에선 비교적 어렵지 않고 단순한 사건들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재판관을 환영하는 자리도 열려 '선배' 재판관들이 덕담하면서 향후 현재 생활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일부 재판관들 박 전 대통령 수사·재판에 대한 전망이나 파면 결정 이후에 대한 소회를 나누기도 했으나 대체로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는 후문이다.

탄핵심판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현재 청사 정문에는 여전히 경찰 인력이 지켜선 상태다. 재판관마다 3~4명씩 붙든 '24시간 실타'도 탄핵 반대세력의 움직임에 따라 유동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대통령을 파면한 현재가 앞으로 다를 중요 사건으로는 '양심적 병역거부처벌' 위헌법률심판 사건이 꼽힌다. 다만, 일각에선 차기 소장이 임명돼 9인 체제가 완비된 이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지난달부터 서울 삼청동 소장 공관 시설을 대대적으로 손보는 등 새 소장 맞이 준비를 시작했다.

연합뉴스

# 美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 한반도 전개

트럼프 北 압박 첫 군사조치...유사시 공중전 기전제압

중국 우다웨이 방한...윤병세 장관과 면담

미국이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CVN 70)를 전격적으로 한반도 주변 해역에 전개하기로 함에 따라 군사적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칼빈슨호는 과거 중동 지역에서 적에 대한 첫 공격 임무를 수행한 전력이 있다. 미국의 지상·해상·공중 전력이 펼치는 대규모 공세의 포문을 여는 역할을 한 것이다.

10일 미 해군 웹사이트에 따르면 2001년 9·11 테러 직후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 벌인 대테러전인 '항구적 자유' 작전에서 칼빈슨호는 첫 공격 임무를 맡았다. 9·11 테러 당시 인도 주변 해역에 있던 칼빈슨호는 미 해군의 지시에 따라 급히 아라비아해로 이동해 핵추진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CVN 65)와 함께 공격을 준비했다.

그해 10월 7일 밤, 미군은 전격적으로 공습에 나섰고 F/A-18 슈퍼호넷 전투기를 비롯한 칼빈슨호의 함재기들이 대거 투입됐다. 미 본토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B-2 스텔스 폭격기도 공습에 가담했다.

1996년 8월 사담 후세인 당시 이라크 대통령이 자국 내 쿠르드족을 공격한 데 대한 미국의 응징 작전에서도 칼빈슨호는 첫 공세를 주도했다.

미국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직후 북한을 압박하는 첫 군사조치로 칼빈

슨호를 한반도 해역에 보낸 것도 유사시 대규모 공중전력으로 기전을 제압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북핵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10일 윤병세 장관을 예방했다.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방한한 우 대표는 오후 3시께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를 찾아 윤 장관과 면담했다.

우 대표는 논의 주제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가볍게 인사만 했을 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접견실에서 윤 장관을 기다리는 과정에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대화에서 "장관님과 한중관계에 대해 대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우 대표는 윤 장관 예방에 이어 김 본부장과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및 만찬을 하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는 작년 12월 9일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된 이후 4개월 만으로, 우 대표의 방한은 지난해 2월 이후 1년여 만이다.

우 대표의 이번 방한은 6~7일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의 북핵 관련 협의 내용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 기류, 중국 정부가 파악한 북한 동향 등을 청취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노코멘트” 중국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10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한국측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노코멘트”라고 하고 있다.

# ‘관제시위’ 수사도 이달말 마무리

전경련·보수단체 등 이변주 조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종반부로 접어들 가운데 검찰이 이른바 ‘보수단체 관제시위’ 의혹 수사도 이달 말에 종결 짓기로 하고 막바지 관련자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의혹에 연루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보수단체 관계자들을 이번 주 잇따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관제시위를 배후 관리한 것으로 의심받는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 허현준(49) 선임행정관의 혐의와 범죄사실 등을 확정하기 위한 보완 수사 성격이다.

허 행정관은 전경련을 압박해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엄마부대봉사단 등 보수 성향의 친정부 단체들을 재정 지원하도록 하고 관제시위를 추동했다는 의혹을 산다.

그는 이달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허 행정관을 다시 부르는 일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관련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며 신병 처리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허 행정관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는 판단에 따라 이른바 이변 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개로 예상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 시점에 맞춰 수사를 종료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검찰은 이와 관계없이 당분간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도도록 이달 말까지는 허 행정관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사주 풍수 공개강좌 및 수강생 모집

사주(명리)와 풍수를 한번에~  
구슬이 세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무료공개강좌**

- 일 시 : 2017. 5. 9(화) 오후7시
- 장 소 : 남구 주월동 398-52, 2층 (구)대동고양 빛고을연합의원 우측 에벤에셀교회 2층
- 대 상 : 누구나 (선착순 00명)

**초급반 개강 (4개월 과정)**

- 일 시 : 2017. 5. 16(화) 오후7시
- 장 소 : 상동(공개강좌 장소)
- 수강료 : 사주 + 풍수 15만원(월)

**컨설팅 분야**

- 기감풍수 비법전수 및 교육훈련
- 수맥파 중화, 양택풍수 감정 및 비보
- 매장, 이장, 납골당 등 음택풍수 감정 및 비보
- 대형건물, 토지 등의 풍수 감정
- 원인불명의 우환, 사업부진 등의 풍수적 진단
- 사주감정 및 교육 (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한국기감풍수연구회  
062)674-4991 / 010-2246-1508

##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 급매 봉선동 아파트 매매

- 봉선동 포스코 아파트
- 17층 111m<sup>2</sup>(33평)
- 교육환경 최상 / 불로초바로옆
- 시세 4억 3000만
- 급매 4억 1500만원

문의 010-9203-6161